

“계엄령 겪고 나니 민주주의의 소중함 다시 깨달아”

2030세대가 본 '비상계엄'

어른세대 '오월정신' 몸소 경험
영화 '서울의 봄' 소설 '소년이 온다'
떠올리게 돼 더욱 마음에 와 닿아



영화 '서울의 봄'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생애 첫 계엄령을 경험한 광주지역 2030 청년들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태어나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지켜봤지만 태어날 때부터 '오월 정신'을 가진 광주지역 청년들은 '비상 계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투쟁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남진희(여·22)씨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

엄 선포에 대해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찬 표를 소중히 행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을 역사로만 알고 있어 무감각했다. 계엄령을 겪고 나니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김다은(여·30)씨도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가 당연했던 세대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윗세대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정신, 나아가 '오월정신'을 몸소 경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정경선(여·22)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속보를 보자마자 국회에 가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지만 새벽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지켜봤다”고 회상했다.

정씨는 “계엄령 선포 이후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금 느꼈다”며 “한 번의 잘못된 투표로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5·18을 다룬 드라마 '오월의 청춘',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목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재원(여·21)씨는 “오월의 청춘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욱 참담했다”며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지만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주의 뿌리인 광주에 연고를 둔 KIA 타이거즈의 2024 KBO 리그 통합 우승,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아름다운 기억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시민들에게 총을 들이민 군인들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정은(여·19)씨도 “소년이 온다를 소재로 학교에서 발표를 한 날 비상계엄을 마주했다. 더 이상 '서울의 밤'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며 “국민이 대

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치'이지 '내란'이 아니다. 총탄 자국을 깨어난 전일빌딩이, 애국가와 총성이 동시에 울려 퍼진 도청이, 군화가 밟고 지나간 전남대가, 함께 산 시민들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 피로 쓰인 역사는 과거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김다에(여·22)씨는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모습은 마치 한강 작가의 소설 속 한 장면 같아 두려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24)씨는 “군인들이 원수(元首)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최근에 본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도 됐다”고 우려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민주주의 멈췄다' 호외에 관심 폭발

45년만의 비상계엄... 풍자 '밈' '짤'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해제된 4일 광주·전남 지역의 종합 일간지인 광주일보가 관련 소식을 전하는 호외를 발행, 배포했다. 이날 동구 금남로 민주광장을 찾은 학생들이 호외를 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SNS 등에서도 화제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 광주일보사가 4일 발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호외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단순히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시한 제목과 5·18을 겪었던 광주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전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 네티즌은 호외 사진에 “글자만 보고도 눈물이 펄펄 나 버린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광주일보사는 2개면으로 호외 2만부를 제작, 4일 오전 2시 발행했다. 광주일보가 호외를 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7년 9개월만이었다.

1면에는 '비상계엄에 민주주의 멈췄다'라는 표제와 함께 45년만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기사를 실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계엄 선포와 관련한 정치권 반응을 담았다. 2면에는 “경악, 공포...집 밖 나가기 무섭다”는 제목으로 지역민들의 반응과 지역 정치권·외신의 반응을 담았다. 5월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80년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하더라”며 분노했고, “나라 살릴 생각 안하고 국민들 떨게 하는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작된 호외는 오전 3~4시 사이 송정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시청, 전남도청, 나주혁신도시 기관과 일부 아파트에 배포됐으며 이날 오전 9시 5·18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현

장에도 뿌려졌다. 광주일보 호외는 SNS상에서 화제가 됐다. 송정역에 비치된 호외 사진이 담긴 X는 52만뷰를 기록했고 광주일보 호외 발행 사실을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에는 “호외를 지금 이 시대에 보다니, 아찔한 참된 언론인”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특히 “난 그냥 광주는 항상 죄송해”, “아이고야 죄송해라 마음의 부채의식은 전국민이 가져야 함”, “윤석열은 광주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해” 등 1980년 5월을 겪은 광주 시민들을 걱정하는 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그밖에 전일빌딩 245 '소년이 온다' 카페를 찾은 방문객들도 로비에 놓인 광주일보 호외를 읽으며 역사의 한 순간을 만났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풍자한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만 해도 '경악', '공포', '집 밖에 나가기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던 시민들은 국회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당시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짤'(이미지나 짧은 동영상), 패러디 사진 등의 형태로 현 정권의 무능함과 헌법·법률 위반을 꼬집고 있다. 한 누리꾼은 '뭐라고?'라는 제목의 짤(사진 1)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해당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간 면담 사진 밑에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 했다고???”라고 쓴 글을 올리며 비상계엄 선포를 풍자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짤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저기가 XX예요? 괜찮지요?”라는 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짤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계엄포고령(1호)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

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된 점을 꼬집은 듯 했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를 패러디해 '서울의 겨울' (사진2)이라는 제목의 짤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날라졌다. 비상계엄으로 출입이 폐쇄된 국회를 진입하는 힘든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도 잇따라 올라왔다. 국회 정문이 봉쇄됐을 때 담을 넘으려는 국회의원을 도와 시민들이 밀어주는 모습이라는 설명을 붙인 '정의로운 담넛기'라는 사진(사진3)도 주목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힘들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눈을 감고 있는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사진4)을 'X(옛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계엄 6회차 할아버지'라고 썼다. 다른 누리꾼은 임광현(민주·비례) 의원의 손가락 부목 사진과 함께 '의원임을 밝혔다는데도, 경찰관한테 제지를 받아 몸싸움하다가 손가락 부러지면서까지 들어갔다'는 글을 올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www.kwangshin.ac.kr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